

여름철 사료 관리와 급여는 이렇게



김지훈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양돈연구담당

돼지는 선천적인 땀샘(코끝, 입술, 다리주위에만 있음)의 퇴화와 피하지방이 두꺼운 관계로 체내에 축적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하지 못한다.

따라서 호흡수를 늘려 체열을 발산하는 것이 유일한 체온 조절 작용이다. 이 과정은 심한 체력이 소모되는 과정이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생산성 저하현상이 동반된다. 따라서 환경 및 사양관리, 영양 공급 등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획기적인 대책은 없다. 이제까지 알려진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것이다.

1. 영양적 대책

가. 지방의 적절한 이용

영양소를 섭취하면 그 영양소가 소화/흡수/대사되면서 체내 대사열이 발생하는데, 조단백질과 조섬유는 단위섭취당 열발생량이 많고, 조지방은 상대적으로 단위섭취당 열발생량이 적다. 따라서 지방은 하절기에 돼지의 체내 대사열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돼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요구량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영양소이다.

그러므로 하절기에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지방을 통한 에너지 공급을 늘려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필수 아미노산 강화

전반적인 사료섭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료 단위당 영양소 농도가 높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으나, 조단백질 기준으로 영양소 농도가

높은 사료는 체내 대사열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아미노산 기준으로 영양소 농도를 높은 사료가 더 유리하다.

시설과 적절한 사육밀도 유지, 급이기 및 급수기 관리를 통하여 최대한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 주어야 한다.

다. 비타민과 고온 스트레스

비타민 E는 천연 항산화제로서 여름철에 쉽게 산패하기 쉬운 지방의 이용성을 보존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여, 고온 스트레스가 언급될 때마다 주목 받는 영양소이다. 비타민 E는 또한 번식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여름철 모돈/웅돈 관리에 잘 응용할 수 있는 비타민이다. 비타민 C도 고온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대용유의 적절한 활용

여름철에는 모돈의 체성분 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한 자돈의 이유성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용유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용유의 사용 효과는 모돈의 사료섭취량이 충분한 동절기보다는 모돈의 사료섭취량이 떨어지는 하절기에 획기적인 자돈 성장을 개선으로 나타난다.

2. 사양관리적 대책

가. 사료급여 방법

사료 급이시에도 되도록 여러 번 그리고 시원한 시간에 급이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가급적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포유모돈은 전체 사료섭취량의 약 65%를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 사이에 섭취한다.

나. 사양관리에 의한 체감 온도 조절

환경적으로는 외부의 고온에 의한 체온상승을 효과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기 시설 점검, 스프링클러, 드립 쿨링 등의 온도 관리

3. 기타 사료 관련 관리사항

- 가. 사료빈에 차광막을 쳐서 벌크빈을 그늘지게 한다. 여름철 낮의 벌크빈 내부온도는 70 ~ 80°C에 이르나, 차광막을 씌울 경우 40~50°C로 떨어지게 된다.
- 나. 사료빈 내부의 사료 부패여부를 자주 확인하고 문제시 수세하여 건조시킨다.
- 다. 입질(갓난돼지)사료의 경우 쌓아놓지 말고 세워서 관리한다.
- 라. 돈사지붕 및 주변을 차광막으로 씌운다.(바람의 이동을 막아서는 안됨)
- 마. 외부에 노출된 물탱크는 우레탄을 이용하여 직사광선을 피한다. 음수 온도가 높으면 물 섭취량이 떨어지고 이로인해 사료 섭취량도 낮아진다. 물탱크에 얼음을 넣으면 음수온도를 낮출수 있다.
- 바. 지대사료창고와 사료빈에 빗물이 유입되는 곳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양돈**